

2009년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정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031-610-8110

한국이란 나라를 떠 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일까? 예전부터 한국은 끈기의 나라, 성실의 나라로 가장 많이 알려져왔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성실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1998년 IMF라는 경제 위기를 온 국민의 단견된 모습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도 세계적인 국가로 선수 있었던 것은 강인하고 성실한 국민성과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교육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2009년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해가 떴다.

한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한해를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한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조진속에서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다.

2009년은 어느해 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고 당시 세웠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새해 아침

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가득히 큰 목표를 세워본다. 목표가 없는 삶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만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속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의 내가 내일은 좀더 변화된 모습속에 있기를 누구나가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 없는 나의 모습 보다는 무엇인가 변화속에 나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게 되어진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면서 본인이 목표로 한 자기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되어진다. 대부분 학교를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나는 커서 무엇이 되어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자신의 모습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

불과 몇 년전만 하여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망 직업으로는 의사, 변호사, 관사, 교수 등 전문직이었으나 현재는 예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연예인, 축구선수, 골프선수, 야구선수 등이 희망 직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희망 직업에 대한 구조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 사람마다 치해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계획하는 바가 다르다.

2009년의 새해 첫 태양의 떠오름을 바라보면서 제각기 다른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지 뚜렷한 목표가 세워진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속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이 사기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래 목표가 있듯 국가에서 세운 한해의 목표 속에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설문조사 발표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가장 먼저 줄이고 있는 지출항목과 가장 줄이기 힘든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먼저 줄이고 있는 지출항목으로는 20대는 외식비, 30대는 문화·레저비, 그리고 40대는 의료·구입비라고 답하였으며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30대에서 자녀과외비라고 답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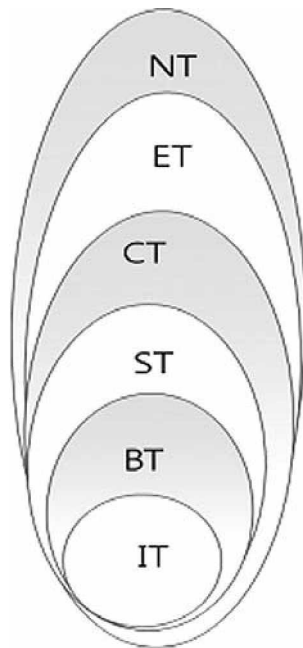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대와 환경이 변화해도 우리나라 교육열에는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대부분 관심사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 자녀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목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인적자원은 국가적으로 보아 큰 힘이라고 생각된다.

엘빈토플러는 부의미래라는 그의 저서에서 농업혁명을 본격적 문화의 시대로 도래하는 번

화의 제1물결이라 정의하였으며, 고도로 산업화되어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 대량교육 등 산업사회로의 사회변화를 일으킨 산업혁명을 제2의 물결이라 정의하였고, 1950년대 후반부터 정보사회로 변혁이 일어나면서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을 통한 변화를 제3의 물결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본다면 얼마전 만 하여도 IT 기술을 통한 변화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융합기술을 통한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생명공학기술(BT; Biology Technology)·나노기술(NI; Nano Technology)·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환경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등 이른바 '6T'의 융합된 기술을 통한 대변화가 현대사회에 가장 큰 관심사로 도래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내용속에 토폴러 부부는 미국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각계 각종의 변화의 모습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속도에 비유해 설명했다.

즉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는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90마일로 달리는 조직으로는 시민단체를 들었으며 시민단체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능가하는 의사결정 속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 관료조직과 각종 규제기관은 시속 25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정부관료조직보다 더 느린 속도로 달리는 조직으로 지적하고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학습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6T'의 융합된 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통한 학습속도의 향상이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쟁속에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결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밝은 희망을 전해준 태양은 내일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

2009년의 새해 아침에 계획했던 알찬 목표를 좀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 2010년의 새해 아침을 좀더 변화된 모습속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식을 통한 변화의 속도는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요즘 인기예보에서는 내일 비올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속도는 인기예보처럼 몇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올해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속도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다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몇 년전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변화의 속도보다도 몇 배 빠르게 미래는 변화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의 새해 첫아침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였던 태양의 모습은 2010년에는 좀더 밝은 변화된 모습과 기쁜 변화된 모습속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09년의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각자의 새해 목표를 향한 도전을 끊임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몇 번의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했던 저력을 발휘하여 2009년의 경제적 어려움도 세계적인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강국답게 빠른 시간내에 이겨낼 것을 2009년의 새해 아침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약속하고 변화를 위한 속도를 가해본다.

| 기술표준 2009.2